

2025학년도 2차분 도서구입용 도서 목록

순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서평	분류
1	유전자 스위치	장연규	히포크라테스	『유전자 스위치』를 접하는 독자들은 후성유전학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작동하는 다양한 원리와 신비에도 접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읽기 쉽게 쓰였다.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생물학의 기본적 개념인 유전자의 원리부터 복잡한 분자 수준의 후성유전 작용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과학
2	알기 쉬운 선형대수 (12판)	Howard Anton , Chris Dorres , Anton Kaul	한티에듀	이 책은 2019년에 출판된 H. Anton, C. Dorres, A. Kaul의 Elementary Linear Algebra 12판의 번역서이다. 판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선형대수 교재로, 국내에서도 번역서가 출판되어 표준적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과학
3	우연을 길들이다	이언 해킹	바다출판사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실천적 철학자이자 과학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틀로 ‘추론 스타일’ 개념을 주창한 이언 해킹의 대표적인 이 책은 근대를 규정하는 개념인 ‘통계’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개념인 ‘우연’을 둘러싼 철학적 연대기를 선보인다.	과학
4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	아메데오 발비	북인어박스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는 ‘우주로의 이주’라는 인류의 꿈과 그 꿈이 직면할 현실적인 한계들을 과학적 관점에서 탐구한 책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천체물리학자 아메데오 발비(Amedeo Balbi)는 최근의 우주 탐사 열풍이 과학적인 진보만큼이나 인간의 미래에 대한 낭만적인 꿈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꿈이 현실의 기술적, 생물학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들과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살펴본다.	과학
5	아하! 물리수학	Ken Kazuishi	성안당	이 책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수학의 방대한 지식 중 공학이나 물리학에서 이용되는 부분만을 모아, 이공계 학생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순수 수학의 수학적 증명 같은 것은 배제하고 수학의 장점만을 취하여, 공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 수학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과학
6	대학물리학 에센스	Raymond A. Serway, John W. Jewett	복스힐	‘대학물리학 에센스’ 물리학 교재는 1년 과정의 미적분을 바탕으로 한 물리학 입문 과목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공계 학생들과 물리 과목을 배우고자 하는 의학 계열 학생들을 위해 집필 되었다.	과학
7	대학물리학 에센스 해설집	대학물리학 교재편찬위원회	복스힐	복스힐의 도서 <대학물리학 에센스>의 해답집입니다.	과학
8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 (개정증보판)	이재호	어바웃어북	개정증보판에서는 [스페셜 에디션 : Anatomy & Architecture]을 권말특집으로 마련해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 예술에 담긴 해부학적 코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저자는 바르셀로나 카사바트요와 구엘공원 등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직접 찾아가 탐사하며 건축역학과 우리 몸의 구조에 얽힌 인체공학적 원리를 분석했다.	과학

9	과학의 첫 문장	수잔 와이즈 바우어	월북	『과학의 첫 문장』은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과학 원전 36권을 담은 책이다. 세계사의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베스트셀러 『세계 역사 이야기』의 저자 수잔 와이즈 바우어가 인문학자의 시선으로 과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친절하게 풀어준다.	과학
10	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	KAIST 기계공학과	해냄출판사	『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은 오늘날 기계공학이 이끌어가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룬 공학 교양서로, 오늘날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든 기술 혁명의 방향과 흐름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과학
11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	박한슬	북트리거	이 책은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진통제, 항바이러스제까지 우리 주위의 약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당장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학적 쓰임을 통해 몸에 적용되는지, 또 어떻게 복용하면 되는지 알려 주는 쓸모 있는 ‘과학 실용서’이다.	과학
12	날마다 우주 한 조각	지웅배	김영사	무한한 우주를 매일 한 조각씩 들여다보는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싶다면 바로 이 책이다. 태양계부터 별과 성운, 소천체와 은하까지 365장의 경이로운 우주 사진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우주 이야기가 한 편씩 실려 있다.	과학
13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서	조르조 파리시	사이언스북스	파리시의 처음이자 최신의 에세이인 이 책은 그가 1966년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에 입학 후 68 혁명의 한복판에서 맛보았던 격변의 기억, 수수께끼 같은 상전이 현상에 쏟았던 관심, 스핀 유리를 분석하는 복제 기법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던 과정에 대한 고찰, 25세의 나이에 노벨상을 코앞에서 놓쳤던 경험, 그렇지만 결국 노벨상 수상자로 우뚝 서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담은 8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14	다윈의 위험한 생각	대니얼 데닛	바다출판사	이 책은 자연 세계의 중요한 모든 것이 다윈주의적 진화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대니얼 데닛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데닛은 특유의 치밀한 논리와 명쾌한 은유, 생생한 상상력을 통해 ‘다윈의 위험한 생각’ 즉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론이라는 알고리즘적 과정의 철학적 의미를 분석하고, 다윈의 아이디어를 통해 인류의 세계관과 우주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한다.	과학
15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본 쉬나드	라이팅하우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계 최고가 된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과 이본 쉬나드의 60년 경영 철학을 공개한 최초의 책이다.	경제/경영
16	4차 산업혁명과 병원의 미래	이종철	청년 의사	4차 산업혁명은 병원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쯤이며, 각 진료 과별 의료인들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국내 유수 병원의 분야별 전문가 76인이 모였다. 한국 의료의 과거와 현재는 어떠한 모습이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처하게 될 혁신적인 환경은 무엇인지 예측하고 그 대처 방안을 고민해 본다.	기술/공학
17	칼날 아래 놓인 의료	하워드 웨이츠킨	한울	하워드 웨이츠킨과 자본주의를 넘어서 건강 행동단체 및 공공의료제도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은 미국의 불합리한 의료체계와 만연한 건강불평등 문제, 그리고 영리기업화 하는 병원과 금융상품화된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그 기원부터 철저히 파헤쳤다.	기술/공학
18	창백한 불꽃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문학동네	《롤리타》의 대중적 성공 이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시인, 문학교수, 번역가, 소설가로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집필한 장편소설 『창백한 불꽃』.	기타나라소설

19	방랑자들 (세계문학전집. 399)	올가 토카르추크	민음사	2018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대표작 『방랑자들』이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99번으로 출간되었다.	기타나라소설
20	예언자의 노래	폴 린치	은행나무	2023년 부커상 수상작 《예언자의 노래》가 출간된다. 전체주의에 휩쓸린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 작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이 집필의 발단이 되었다고 밝혔듯, 명백한 현실을 허구로 전복함으로 써 통렬한 소설을 완성해냈다.	기타나라소설
21	그녀를 지키다	장바티스트 앙드레아	열린책들	퍼내는 소설마다 프랑스의 주요 문학상을 휩쓸며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장바티스트 앙드레아의 장편소설 『그녀를 지키다』가 정혜용 씨의 번역으로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세계 3대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수도원 지하에 유폐된 피에타 석상에 숨겨진 비밀을 석공 미모의 굴곡진 삶을 통해 풀어 가면서, 파시즘이 득세하던 당시 이탈리아의 풍경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 속에서 태생적 한계와 사회적 난관에도 꺾이지 않는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기타나라소설
22	To Kill a Mockingbird	Harper Lee	Grand Central Publishing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 출간 직후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이듬해 하퍼 리에게 풀리처상의 영예를 안겨 준 작품이다. 지금까지 40개 국어로 번역되어 4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매년 1백만 부 이상씩 팔리고 있는 스테디 베스트셀러다.	서양도서(원서)
23	Cosmos	Carl Saganm Neil Degrasse, Ann Druyan	Ballantine Books	20년전에 출판되어 과학 교양서의 고전이 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동안 절판되어 많은 독자들을 안타깝게 했던 이 책이 새롭게 완역되어 출간되었다. 우주의 탄생, 은하계의 진화, 태양의 삶과 죽음, 우주를 떠돌던 먼지가 의식 있는 생명이 되는 과정, 외계 생명의 존재 문제 등이 250여 컷의 사진과 일러스트, 우아한 문체로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게 묘사되었다.	서양도서(원서)
24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김새별, 전애원	청림출판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통해 소개되어 죽음에 대한 의미와 고찰을 전하기도 한 이 책은 서로의 표정과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는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시/에세이
25	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	민구	아침달	민구 시인의 『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가 출간됐다.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2014년 『배가 산으로 간다』(문학동네)를 펴낸 민구의 두 번째 시집이다. 민구는 45편의 시를 통해 일상에서 발견되는 여백의 한적한 외로움을 그려낸다.	시/에세이
26	숲	권유영 외 50명	파도	파도의 열여섯 번째 주제는 <숲>입니다. 거리낌 없이 들어실 수 있는 공기, 편안해지는 시아와 시멘트 없는 흙의 포근함, 숲을 찾아온 생명들의 지저귀음을 잠시나마 <016 숲>에 옮겨두었습니다.	시/에세이
27	여름	손연후 외 52명	파도	파도의 여덟 번째 주제는 <여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매말랐던 나뭇가지에 초록이 가득 차고, 무거웠던 옷가지들이 가벼워지고, 뜨거운 벌레 기력을 뺏기기도 하는 계절인 여름을 여러분의 의미와 함께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생동하는 53개의 <여름>을 시로 담았습니다.	시/에세이
28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	강지이	창비	2017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강지이 시인의 첫 시집 『수평으로 함께 잠겨보려고』가 창비시선으로 출간되었다.	시/에세이

29	너와 바뀌 부를 수 있는 것	강우근	창비	202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한 강우근 시인의 첫 시집 『너와 바뀌 부를 수 있는 것』이 2024년 ‘창비시선’의 첫 책으로 출간되었다.	시/에세이
30	오역하는 말들	황석희	북다	《오역하는 말들》은 번역가의 시선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본 일과 일상 속 오역들에 대한 이야기다. 20년간 번역 일을 해 왔지만 “계속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 별 생각 없이 번역체를 쓰고 넘어가 버린다.”라며 익숙한 문장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려 애쓰는 그는 같은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본다.	시/에세이
31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	양안다	민음사	201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데뷔하여 시집 『작은 미래의 책』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각인시킨 젊은 시인 양안다의 신작 『백야의 소문으로 영원히』가 민음의 시 252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시/에세이
32	빛과 실	한강	문학과지성사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는 선정 이유와 함께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신작 『빛과 실』(2025)이 문학과지성사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의 아홉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시/에세이
33	여름 피치 스파클링	차정은	다이브	문단보다 독자들이 먼저 알아본 시인 차정은이 신간 《여름 피치 스파클링》으로 다시 우리에게 여름을 선사한다. 《토마토 컵라면》에서 토마토처럼 강렬한 여름 그 자체를 표현했다면, 이번 시집 《여름 피치 스파클링》에서는 복숭아 과즙처럼 청량하고, 청포도처럼 날카로운 감성을 좀 더 정교하고 정제된 언어로 담아냈다.	시/에세이
34	마주 보는 한일사. 1 (선사시대~고려시대)	전국역사모임	사계절	양국 교사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공통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각 시대의 주요 쟁점들을 균형 있게 서술함으로써 ‘국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역사/문화
35	마주 보는 한일사. 2 (조선시대~개항기)	전국역사모임	사계절	양국 교사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공통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각 시대의 주요 쟁점들을 균형 있게 서술함으로써 ‘국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역사/문화
36	작은 사람들의 일상사	정병욱, 이우재 등	푸른역사	이 책에 실린 9편의 글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고려대와 독일 튀빙겐 대학교, 영국의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열렸던 다섯 차례의 일상사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을 골라 엮은 것이다. 이 책은 그간의 연구 공백을 메우며 현재 국내 일상사 연구의 성과를 부분적으로나마 한자리에서 엿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귀한 의미가 있다.	역사/문화
37	새로 쓴 한국사특강	고태우, 권오영, 김건태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학계에서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수렴하고 그간의 변화들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집필된 『새로 쓴 한국사특강』은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서술을 중심으로 하고, 세계사를 구성하는 한 나라의 역사로서 한국사의 위치가 드러나도록 했다.	역사/문화
38	역사책 좀 다시 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쓸모 있는 세계사 365	요나스 구세나에르츠, 벤저민 고이배르츠, 로랑 포쉐	정민미디어	이 책은 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하루에 한 가지 사건을 읽어도 좋고, 마음 내키는 대로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읽어도 좋다. 13일의 금요일 같은 특별한 날엔 일부를 건너뛰거나, 생일처럼 중요한 날에는 두 개의 이야기를 함께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유롭고 유연한 독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의 역사적 사건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역사/문화

39	벌거벗은 세계사 : 과학편	tvn<벌거벗은세계사>제작팀, 구지훈, 김응빈, 남성현, 맹성렬, 박민아, 박진영, 염운옥, 윤성호, 이두갑, 홍성욱	교보문고	《벌거벗은 세계사: 과학편》은 tvN 최고의 교양 프로그램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다뤘던 내용 중 과학에 관한 사건들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인간의 생명, 산업혁명, 인간이 등장하기 전의 시대, 생물의 진화, 화학과 물리학, 고생물학, 지질학, 환경 오염 등 다양한 주제를 세계사와 과학 지식을 넘나들며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역사/문화
40	버진 수어사이드 (세계문학전집. 458)	제프리 유제니디스	민음사	"오늘날 미국 최고의 젊은 소설가"(<뉴요커>)라는 평을 받은 제프리 유제니디스의 첫 장편 소설 『버진 수어사이드』가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출간되었다.	영미소설
41	위싱 머신	소피 쿠슨스	모모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소피 쿠슨스가 전하는 현재의 소중함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유쾌하고 따스한 이야기, <위싱 머신>이 모모에서 출간되었다.	영미소설
42	디어 에번 헨슨	벨 에미치, 스티븐 레벤슨, 벤지 파섹, 저스틴 폴	현대문학	2017년 토니상 6개 부문, 2018년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며 명실공히 현존하는 최고의 뮤지컬로 자리 잡은 <디어 에번 헨슨>을 소설로 만난다. 영화 <라라랜드>와 <위대한 쇼맨>으로 유명한 작곡 팀인 벤지 파섹과 저스틴 폴이 만든 뮤지컬로, 가사 작업을 하는 벤지 파섹이 고교 시절에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뛰어난 작가이자 싱어송라이터, 배우인 벨 에미치가 특유의 시적 감수성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설로 재탄생시켰다.	영미소설
43	웬만해선 죽을 수 없는 최고령 사고 클럽	클레어 폴리	책깃	『웬만해선 죽을 수 없는 최고령 사고 클럽』은 영국 런던의 작고 평범한 마을 해머스미스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배경으로 기세 넘치는 노인들이 만들어가는 세대 대통합 이야기다. 노인들, 19세 미혼부, 말을 하지 못하는 5세 어린이, 이민자, 경력 단절 중년 여성 등 삶이라는 무대 바깥으로 쫓겨난 듯 어느새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들이 과묵하지만 호탕한 70세 할머니 대프니를 만나 유쾌, 상쾌, 통쾌한 인생 반란극을 보여준다.	영미소설
44	내게 남은 스물다섯 번의 계절	슈테판 셰퍼	서삼독	《내게 남은 스물다섯 번의 계절》은 평범한 비즈니스맨이자 두 아이의 아빠 ‘나’가 혼자 시골 별장에 내려갔다가 괴짜 농부 카를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이들을 담은 소설이다	영미소설
45	페리퍼럴. 1	윌리엄 김슨	허블	SF 블록버스터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드라마 <페리퍼럴>은 위와 같이 초창기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윌리엄 김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 원작이 바로 전 세계 김슨 마니아를 열광케 했던 작품 『페리퍼럴』이다.	영미소설
46	페리퍼럴. 2	윌리엄 김슨	허블	SF 블록버스터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드라마 <페리퍼럴>은 위와 같이 초창기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윌리엄 김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 원작이 바로 전 세계 김슨 마니아를 열광케 했던 작품 『페리퍼럴』이다.	영미소설
47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	오스카 와일드	민음사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은 이제껏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저본으로 활용되어 온 ‘1891년 판본’이 아닌, 1890년 <월간 리핀콧>에 게재되었던 ‘최초의 판본’을 바탕으로 작업하였다.	영미소설

48	더 코워커	프리다 맥파든	해피북스투유	출간하는 책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프리다 맥파든의 신작 <더 코워커>가 출간되었다. 프리다 맥파든은 2023 국제 스릴러 작가상과 굿리즈 선정 '미스터리&스릴러 부문'을 수상했으며, 전작인 <하우스메이드>는 전 세계 1,700만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영미소설
49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로버트 제임스 월러	시공사	출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작품이 가진 묵직한 감동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과거에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읽은 독자들은 물론, 아직 접해 보지 못한 독자들까지도 새로 태어난 특별판을 통해, 더 깊고 아름다운 운명적 사랑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영미소설
50	레트로 마니아	사이먼 레이놀즈	작업실유령	『레트로 마니아』는 대중음악을 필터로 삼아 우리 문화 전반에 만연한 레트로 문화를 처음으로 철저히 파헤친 책이다. 그저 상업적인 복고 경향에 대한 한탄을 넘어 이러한 문화가 우리 시대의 독창성과 독자성에 중말을 고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한다.	예술/문화
51	모던 팝 스토리	밥 스탠리	북라이프	이 책은 동시대에 미국과 영국의 이야기를 오고가며 어떻게 서로 대항마가 되어 경쟁과 소멸을 반복하며 팝 시장을 이끌어왔는지 보여주고, 뮤지션과 밴드의 뒷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던 팝의 성장 과정에서 탄생한 수많은 장르와 프로듀서, 레코드 레이블, 음악 잡지 등 또 다른 주역들의 이야기도 빠짐없이 보여준다.	예술/문화
52	방구석 미술관. 3	조원재	블랙피쉬	2018년 1탄 출간 이후 8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며 예술 교양서의 새 지평을 연 책 <방구석 미술관>이 5년 만에 3탄 '서양 현대미술' 편으로 돌아왔다! 끊임없이 진화한 '미술계의 찰스 다윈' 피트 몬드리안부터 '황금 빗줄기'를 보겠다는 욕망 하나로 달려온 초현실주의자 살바도르 달리, '복제 머신'이자 '질투의 화신'이었던 팝아트의 황제 앤디 워홀까지, 예술가들의 실체를 낱알이 파헤치는 사이, 난생처음 현대미술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문화
53	위버멘쉬	프리드리히 니체	떠오름	이 책은 니체의 대표작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Human, All Too Human)』을 기반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고민과 삶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담았다.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	인문/교양
54	어쩌다 정신과 의사	김지용	심심	이 책에는 공부는 잘하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던 청년이, 진짜 정신과 의사가 되기까지 10년간 겪은 좌충우돌 이야기가 총총하게 실려 있다.	인문/교양
55	직업으로서의 학문	막스 베버	나남	『직업으로서의 학문』은 주로 정신노동, 즉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현대와 같이 분업화된 사회, 가치들이 서로 투쟁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 강연은 비단 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직업인에게 해당된다.	인문/교양
56	철학, 혁명을 말하다	한국프랑스철학회	이학사	이 책은 68혁명 50주년을 기념하여 현대 프랑스 철학을 연구하는 국내의 학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68혁명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사유와 행적을 서술한 글들을 실음으로써 다각도에서 68혁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철학 외에도 역사학과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쓴 두 편의 글을 더 실어 68혁명의 전체 모습을 조망하고 있다.	인문/교양

57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앨런 프랜시스	사이언스북스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한 정신 의학자의 정신병 산업에 대한 경고』는 급증한 정신 장애의 이면에 감춰진 현대 정신병 산업의 실체를 파헤친 책이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이 책에서 정신병이 유행처럼 번진 이유에 대하여 정신장애의 과잉 진단, 의약품의 과잉 처방 등을 지적한다. 이 책은 내부자의 시선으로 현대 정신 의학계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통제 불능의 정신장애 진단에서 현대인을 구하고자 한다.	인문/교양
58	사이언스 픽션	스튜어트 리치	더난출판	《사이언스 픽션》은 연금술과 미신의 도구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과학의 근본적인 정신과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니얼 카너먼(프라이밍 현상에 대한 실험) 같은 대중 과학 서적의 저자부터 필립 짐바르도(스탠퍼드 감옥 실험), 스탠리 밀그램(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황우석(인간 배아 복제 실험) 등 세기의 연구자라 칭송받던 이들의 화려한 과학 업적 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과 동료들의 비윤리적 행동, 과학계의 부패한 현실을 낱알이 파헤친다.	인문/교양
59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오수현	시원북스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매매, 위임, 증여 같은 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다. 민법이 사람과 물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들은 어떻게 규율하는지 등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인문/교양
60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마크 월린	심심	책은 레이철 예후다 연구 사례를 비롯해 미해결 상태로 남은 가족 트라우마가 세대에 걸쳐 대물림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최신 연구 결과를 망라해 살살이 다룬다. 또 20년 넘는 임상 경험을 지닌 저자가 꺼내놓는 ‘내밀하고도 감동적인’ 상담 사례는 트라우마를 개인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확장해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인문/교양
61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59가지 심리실험 : 위로와 공감편	이케가야 유지	사람과나무사이	저명한 뇌과학자인 저자가 뇌과학, 정신의학,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자들의 흥미롭고도 기성천외한 59가지 심리실험을 통해 뇌과학과 심리학이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날카롭게 파헤친다.	인문/교양
62	공감은 지능이다	자밀 자키	심심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자밀 자키는 《공감은 지능이다》에서 심리학과 뇌 과학, 신경과학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우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술임을 밝힌다.	인문/교양
63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어크로스	문화 비평가이자 역사학자인 크리스틴 로젠은 《경험의 멸종》에서 경험이 소멸하는 21세기적 현상을 탐구하고 그 소멸이 갖는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대중문화, 과학, 정치, 법률 등 수많은 사례를 탐사하는 로젠의 작업은 인간의 조건이 되었던 경험들이 사라져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흐름을 전복할 지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문/교양
64	그릿	김주환	인플루엔셜	인간 성취력의 비밀을 밝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김주환 교수의 《그릿》이 12년 만에 전면개정판으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인문/교양
65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본격 추리물, 특히 베스트셀러 『가면 산장 살인 사건』에 열광했던 독자라면 무척 반길만 한 또 하나의 ‘클로즈드 서클’, 이른바 ‘밀실 살인’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다.	일본소설
66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선집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서커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일본 근대 단편 소설의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펴내는 선집은 아쿠타가와가 남긴 작품들 중 43편의 대표작을 엄선해서 연대순으로 배치해 그의 문학 세계의 변천 과정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일본소설

67	가면의 고백	미시마 유키오	문학동네	『가면의 고백』, 일본을 대표하는 심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첫 장편소설로, 자신의 내밀한 동성애적 성향을, 성장과정 및 주변환경과 결부시켜 논리적으로 파헤친 것 자체가 당시 일본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일본소설
68	오후의 예향/짐승들의 유희	미시마 유키오	문학과지성사	이 책은 미시마 유키오 저자의 일본소설집이다. 오후의 예향 이야기와 짐승들의 유희 이야기들로 수록되어 있다.	일본소설
69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이치조 마사키	모모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로 출간 3개월 만에 10만 부 판매, 곧 이어 15만 부 판매를 돌파하며 2021년 하반기 외국소설 1위에 오른 이치조 마사키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일본소설
70	악의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가가 형사 시리즈』 제3권 『악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초기 대표작이자 많은 미스터리 팬들의 필독서 겸 입문서로 사랑받는 소설이다. 한 인기 작가의 죽음에 얽힌 긴 악의의 여정을 탐구해가는 이 작품은 번뜩이는 두뇌와 끈기를 자랑하는, 완성형의 가가 교이치로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과묵 교사였던 그가 어째서 교직에서 물러나 경찰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개인사를 엿볼 수 있다.	일본소설
71	퓨처 셀프	벤저민 하디	상상스퀘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에 연이어 종합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퓨처 셀프》가 국내 30만 부 판매를 기념하여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간됐다. 스페셜 에디션에는 저자 벤저민 하디가 전하는 한국어판 특별 서문과 중 라이브를 통해 한국 독자들과 만나 나누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자기계발
72	페미사냥	이민주	민음사	명료한 논리와 철저한 역사적 관점으로 쓰인 『페미사냥』은 2010년대의 페미니즘 리부트 이래로 여성학 연구가 축적한 저력을 보여 준다. 기성 연구가 반페미니즘을 일종의 타자로 삼아 평가와 단죄를 가했다면, 1994년생의 젊은 연구자는 ‘서브컬처 오타쿠’로서 내부에서 분석을 전개한다.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의 시선으로 사태의 핵심을 찌른다.	정치/사회
73	왜 강대국은 책임지지 않는가	비비안 포레스터	도도서가	이 책에서 포레스터가 강조하는 것은 서구 강대국이 아닌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서서 직접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양측 모두 서구 강대국의 무책임한 행동의 피해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 “그들의 고통이 시작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고통의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면,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두 민족이 공유하는 현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정치/사회
74	지리의 힘. 3	팀 마샬	사이	이번 책에서는 지상에서 벗어나 우리 머리 위 <우주>로 시선을 옮긴다. 이 책에서는 현재 <빅3 우주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이란, 일본, 한국, 인도, 북한,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대륙 등 총 15개 국가의 우주 역량과 우주 군사화 정도, 우주개발 경쟁에 대해 살펴본다.	정치/사회
75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	박한솔	북트리거	이 책은 대학병원 약사 출신으로 지금은 유력 매체들에서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글 짓는 약사’ 박한솔의 한국 의료 정책 완전 분석서이다. 코로나19와 그 와중에 일어난 의사 파업 등으로 한국 의료계는 일종의 ‘공황’을 앓은 듯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것이 한국 의료계가 겪어 온, 이제 한층 본격적으로 겪게 될 대혼란 상태의 시작도 끝도 아닌 빙산의 일각임을 밝힌다.	정치/사회
76	고독한 용의자	찬호께이	위즈덤하우스	‘중화권 추리소설의 출발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사회파 추리소설 <13·67> 《망내인》의 작가 찬호께이의 신작 장편소설 《고독한 용의자》가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소설

77	연매장	팡팡	문학동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봉쇄된 우한의 참상과 생존기를 담은 『우한일기』출간 이래 중국 정부에서 금서 작가로 지명당한 팡팡은 평생 진실한 글쓰기를 소명으로 삼은 작가다. 『연매장』은 아들 청린이 어머니 덩쯔타오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중국 현대사에서 희생된 개인들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중국소설
78	일억 번째 여름	청예	창비	한국과학문학상,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 K-스토리 공모 등 각종 공모를 휩쓸고 예스24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 선정된 청예의 신작 장편소설 『일억 번째 여름』(창비청소년문학 136)이 출간되었다.	청소년
79	스파클	최현진	창비	복잡하게 얽혀 온 청소년기의 감정을 찬찬한 눈으로 직시하는 작가 최현진의 시선이 오래도록 독자의 곁에 머무른다. 성찰하는 문장,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결말까지, 피할 수 없는 삶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 있게 내어놓는 작품이다.	청소년
80	허밍	최정원	창비	『폭풍이 찾아오는 밤』으로 창비×카카오페이지 영어덜트소설상을 수상하고 『저희는 이 행성을 떠납니다』로 비룡소 틴스토리킹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청소년 독자들의 너른 사랑을 받은 최정원의 신작 장편소설 『허밍』(창비청소년문학 132)이 출간되었다.	청소년
81	쫄 이성한 체육시간	최진환	창비교육	『쫄 이성한 체육 시간』은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 이야기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미있게 풀어 낸 청소년 교양서이다. 이 책에는 스포츠 역사, 문화, 정치, 남북 관계, 차별과 공정, 법과 제도 등 재미와 의미를 모두 갖춘 41가지 스포츠 비하인드 스토리가 수록되어 있다.	청소년

82	(Rosen의) 이산수학 (수정판 8판)	Kenneth H. Rosen	McGraw-Hill Education	이 책은 이산수학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산수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컴퓨터/IT
83	DESMOS 명령어 따라잡기. 1	곽민정, 권혜윤, 노석태, 이수정, 조현일	지오박스	데스모스 액티비티는 공학도구 ppt 학습지 메타버스입니다. 교사입장에서는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는 도구이고 학생입장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과제 꾸러미입니다. 데스모스는 교실의 무료 와이파이와 학생들에게 보급된 태블릿을 수 학습업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컴퓨터/IT
84	DESMOS 명령어 따라잡기. 2	곽민정, 권혜윤, 노석태, 이수정, 조현일	지오박스	데스모스 액티비티는 공학도구 ppt 학습지 메타버스입니다. 교사입장에서는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는 도구이고 학생입장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과제 꾸러미입니다. 데스모스는 교실의 무료 와이파이와 학생들에게 보급된 태블릿을 수 학습업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컴퓨터/IT
85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 (개정 3판)	전시진	제이펍	초판 출간부터 6년간 독자의 응원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이 개정 3판으로 출간되었다.	컴퓨터/IT
86	59가지 통계학 궁금증 완전 정복	황성원	길벗	통계는 단순한 분석 기법을 넘어 데이터의 의미를 해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인 도구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무에서 통계를 접하면, 막상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란을 겪곤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실무적 고민에서 출발한다. 네 가지 핵심 상황을 중심으로 통계의 주요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나가며,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주제들과 통계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IT
87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레이 커즈와일	비즈니스북스	전 세계가 기다려 온 레이 커즈와일의 신작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가 출간되었다. 시의 놀라운 진전이 연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가운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에서 커즈와일은 오늘날 이미 현실이 된 그의 예측을 재평가하는 한편, 인간의 삶을 영원히 바꿀 ‘특이점’을 향한 발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컴퓨터/IT
88	고래눈이 내리다	김보영	래빗홀	한국 SF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자 세계 독자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소설가 김보영이 《얼마나 닮았는가》 이후로 5년 만에 신작 소설집을 펴냈다. 그간 초기작을 복원하고 기존 작품에 결말을 내는 등의 작업을 이어왔지만, 이 책은 대부분 2020년 대에 발표한 작품들로 묶인 신작들이 담겨 독자들에게 반가움을 안긴다.	한국소설
89	두고 온 여름	성해나	창비	왜 타인을 해마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언제나 낯설고 어렵기만 한지,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인연과 슬픔도 후회도 없이 작별할 수 있는지, 실패한 이해와 닿지 못한 진심은 어떻게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회미하게나마 빛나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지 한층 깊어진 응시와 서정으로 풀어냈다.	한국소설
90	예감의 우주	김나현	위즈덤하우스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시간의 레이어를 그려내는 신예 김나현 작가의 《예감의 우주》가 위즈덤하우스의 단편소설 시리즈 위픽으로 출간되었다.	한국소설

91	급류	정대건	민음사	2020년 《한경신춘문예》에 장편소설 『GV 빌런 고태경』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소설가 정대건의 두 번째 장편소설 『급류』가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40번으로 출간되었다.	한국소설
92	토막 난 우주를 안고서	김초엽, 천선란, 김혜윤, 청예, 조서월	허블	SF 전문 출판사 허블에서 한국과학문학상 10주년을 기념하여 수상 작가 다섯 명과 함께 SF 앤솔러지 『토막 난 우주를 안고서』를 선보인다.	한국소설
93	비눗방울 풍	이유리	민음사	소설집 『브로콜리 펀치』, 『모든 것들의 세계』, 연작소설 『좋은 곳에서 만나요』 등을 통해 현실을 돌파하는 능청스럽고 사랑스러운 상상력을 선보여 온 소설가 이유리의 신작 소설집 『비눗방울 풍』이 출간되었다.	한국소설
94	흔모노	성해나	창비	작품마다 치밀한 취재와 정교한 구성을 바탕으로 한 개성적인 캐릭터와 강렬하고도 서늘한 서사로 평단과 독자의 주목을 고루 받으며 새로운 세대의 리얼리즘을 열어가고 있다 평가받는 작가 성해나가 두번째 소설집 『흔모노』를 선보인다.	한국소설
95	잠 못 드는 밤의 궁궐 기담	현찬양	엘릭시르	『잠 못 드는 밤의 궁궐 기담』은 제4회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 단편 부문 수상작 「도깨비집터」(수상 당시 제목은 「잠 못 드는 밤의 궁궐 기담」)를 비롯하여 총 여섯 편의 작품이 실린 연작 단편집이다.	한국소설
96	기이현상청 사건일지	이산화	안전가옥	상당히 초현실적인 존재들과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한 가감 없는 기록이 바로 이산화 작가의 연작소설 《기이현상청 사건일지》다. 기지 넘치는 SF 작가가 초현실의 존재를 빌려 이야기하는 동시대 현실들은 꽤 무게가 나가지만,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예리하고 기뻐한다.	한국소설
97	수호신	청예	네오픽션	『수호신』은 제1회 K-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 제6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에 빛나는 청예 작가의 오컬트 스릴러 소설로, 치밀하게 깔린 복선과 현실적인 묘사가 여느 오컬트 영화 못지않은 훌륭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한국소설
98	첫 여름, 완주	김금희	무제	박정민 배우의 무제 출판사에서 펴내는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권인 이 소설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염두에 두고 쓰여 장편소설이면서도 대사와 지문이 살아 있는 독특한 글쓰기로 읽는 재미를 더한다.	한국소설
99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이기호	마음산책	작가 이기호의 단편소설보다 짧은 이야기 40편을 엮은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박완서의 《세 가지 소원》, 경이현의 《말하자면 좋은 사람》에 이은 세 번째 짧은 소설로, 어디서나 펼쳐 읽기에 부담 없는 호흡으로 압축적이고도 밀도 있는 글쓰기를 보여준다. 일간지에 인기리에 연재한 짧은 소설 가운데 저자가 애착을 가지고 직접 선별한 40편을 새롭게 다듬어 선보인다.	한국소설
100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서은채	황금가지	오래 전에 죽은 첫사랑이 저승사자가 되어 찾아오는 이야기를 그린 감성 미스터리 판타지 소설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 황금가지에서 출간되었다.	한국소설
101	안녕이라 그랬어	김애란	문학동네	소설가 김애란이 『바깥은 여름』(문학동네, 2017) 이후 팔 년 만에 새 소설집으로 돌아왔다. 총 일곱 편의 단편이 수록된 『안녕이라 그랬어』는 강력한 정서적 호소력과 딜레마적 물음으로 한 세계를 중층적으로 쌓아올리는 특징이 여전히 발휘되는 가운데, 이전보다 조금은 서늘하고 비정해진 김애란을 만날 수 있다.	한국소설

102	공룡의 이동 경로	김화진	스위밍풀	『공룡의 이동 경로』는 다양한 관계 중, 특히 ‘친구 관계’를 다룬 연작 소설로,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다섯 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소설
103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창비	2019년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 작가 박상영의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한국문학에서 이미 중요한 주제가 된 퀴어소설. 그중에서도 저자는 성에 있어 가볍게 보일 수 있는 면모를 오히려 작품의 매력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그 안에 녹록지 않은 사유를 담아냄으로써 단연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단숨에 자리 잡았다.	한국소설